

한국당 김진태 광주 방문에 부쳐



조영석 전 언론인

그에게 미안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 공청회'의 주역으로 이곳에 불을 지른 그가 현장을 찾은 것은 무슨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테다. 어쩌면 '신의 한 수'를 두고자 했을 것이다.

김진태의 '신의 한 수'와 우리의 미안함

한 '신의 한 수'는 허담이 되고 말았다. 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할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를 빈 손으로 보낸 뒤 허탈해할 그가 째렸고, 그래서 미안했다.

말처럼 못 올 이유가 없지만 기가 막힌 타 이미지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않아도 전당대회가 오세훈과 황교안 두 후보의 싸움으로 모아지고 있어 결정적 한 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였다.

람이었고,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다. 아수라장이 된 광주에서 '뺨을 맞고 외투가 찢어진 국회의원'이나 '눈가에 계란 세례를 받아 눈을 뜨지 못하는 국회의원'.

불의에는 목숨을 걸고 앞장서 싸우더라도 근본이 인정 많고 눈물 많은 이 곳 사람들이다. 마음이야 어찌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김병준 "5월단체 항의·요구 100% 수용 어렵다"

의원직 박탈·대국민 사과 요구 등 항의 서한 전달 한국당 윤리위 오늘 추가회의... 징계 수위 결정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망언' 3인방의 의원직 박탈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13일 국회를 방문한 5월단체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5·18 망언으로 불의를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게 의원직 박탈과 대국민 사과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못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적합한 진상조사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 정쟁의 수단으로 시간 끌면서 진상조사가 정상화되지 못할 것 같으면 지도부가 조사위원 추천을 포기하고 다른 정당에게 위임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주5월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단의 항의 방문을 받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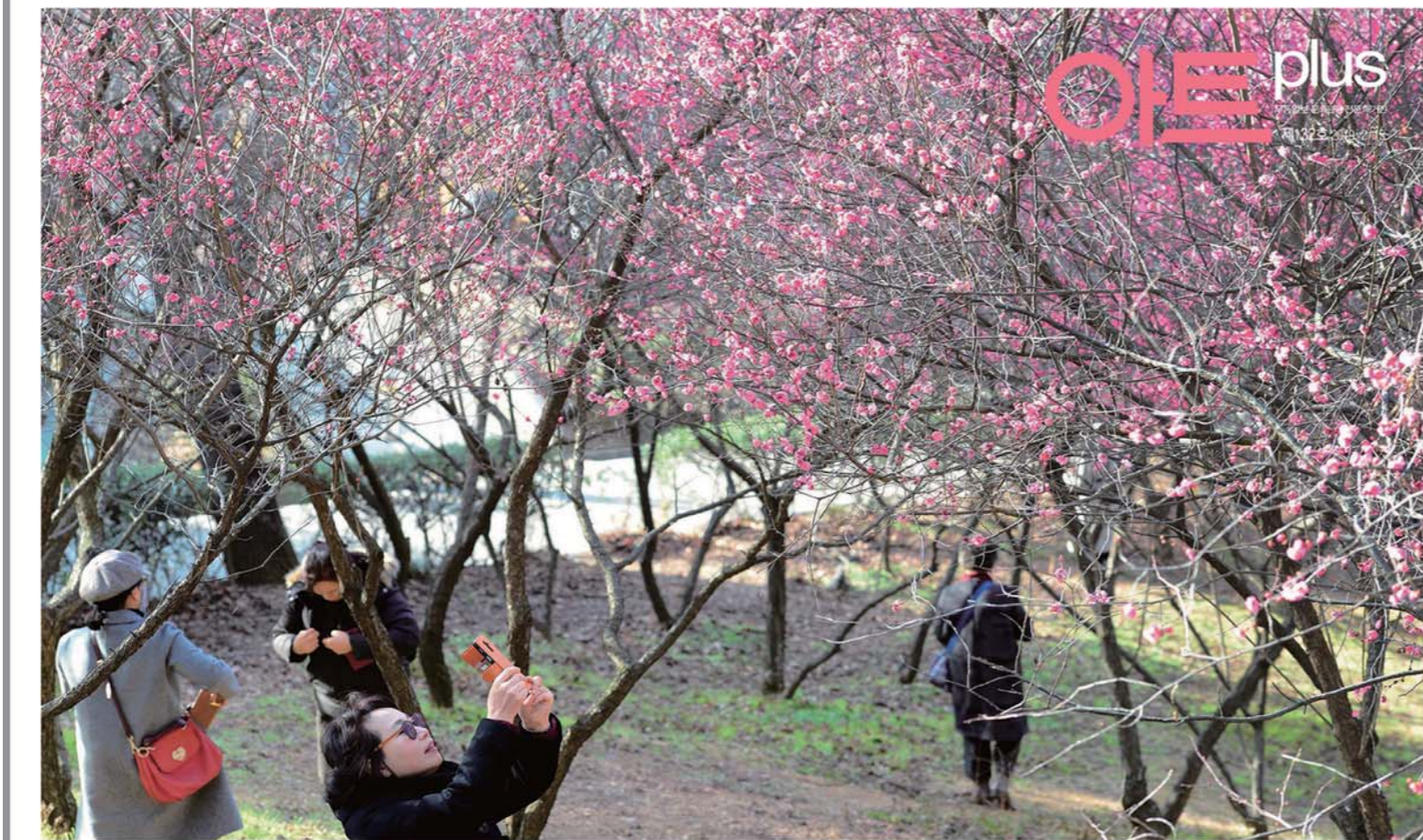
국민 64% "5·18 망언 의원들 제명"

여론조사 결과... 반대는 28.1%

최근 여야 4당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들의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응답률 6.2%)에게 왜곡 발언 의원들의 제명 찬반 여부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이 결과 전체의 64.3%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했다.

다. 반대는 28.1%였는데 '매우 반대'가 15.7%, '반대하는 편'이 12.4%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의 제명 찬성 응답이 8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봄기운 불러오는 흥매화 활짝

광주 공예공원 매봉동산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흥매화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이 흥매화를 배경삼아 추억을 남기는 등 이른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Culture Leadership' featuring a photo of Lee Jin-sik, Director of the Cultural Foundation, and text about cultural leadership and global cities.

Advertisement for 'Culture Foundation' featuring a photo of Kim Seung-soo, Director of the Cultural Foundation, and text about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arts.